

규제연구 제17권 제2호 2008년 12월

#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이 병 기\*

본 연구는 제도의 하나인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헤리티지 경제자유지수와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의 특성을 소득수준별·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기업환경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규제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기업규제지수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에 가해지는 경제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정부의 기업규제 개선과 경제자유 확대는 모두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이 있으며, 경제성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제의 개혁 내지 경제자유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기업규제 지표나 헤리티지의 경제자유지수를 이용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개혁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성장 문헌에서 사용된 제도의 측정치는 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를 제도개혁의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용어: 기업규제, 경제자유, 경제성장

\* 한국경제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12층(e-mail: lbg@keri.org)

\*\* 본 논문은 필자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많은 조언을 해 준 Djankov 박사와 원내세미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논평을 주신 산업연구원 김종호 박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원내의 이주선 선임연구위원, 이인권 선임연구위원, 송원근 연구위원, 정현용 초빙연구위원, 변양규 연구위원의 유익한 코멘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 작업을 도와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의 김지선 씨와 육태미 씨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본 논문에 대해 매우 유익한 논평을 주신 논평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접수일: 11/6, 게재확정일: 12/1

## I. 서 론

한 나라의 법, 금융, 규제, 제도의 특징을 포괄하는 기업환경은 기업의 성과, 더 나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 기업활동을 하는 데 따르는 장애요인들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기업환경은 한 나라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좋은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더 나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제도변화나 규제개혁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일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왜 국가 간 성장률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어떤 국가는 성장을 지속하지만 다른 국가는 낮은 수준의 소득에 머무르는가를 분석하는 다수의 성장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더 우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Barro(1996), Barro and Sala-i-Martin(1995), Hall and Jones(1999), and Acemoglu et al.(2001)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Gwartney et al.(2004) 등은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최근에는 경제규제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추정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Loayza et al.(2005), Djankov et al.(2006), Dawson(2006)은 일관성 있게 규제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

1) “우리는 제도를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심지어 측정할 수도 없다. 즉 제도는 인간정신의 구축물이다.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학을 가장 신봉하는 학자들조차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제도를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신고전파 모델 내에 파라미터로 설정한다. 제도는 중요한가? (중략) 나는 사회에서 모든 제도가 갖는 한층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즉 제도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과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다.” North(1990), 12장 참조.

을 얻고 있다.

특히 Djankov et al.(2006)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규제지수를 이용하여 기업규제의 강화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경제성장을 빠르게 하려면 기업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친화적(business-friendly)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일은 기업과 관련된 규제개선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그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던 실정이다.<sup>2)</sup> 세계은행은 2004년부터 각 국가별 기업규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들을 분석한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icator: DBI)를 개발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다.<sup>3)</sup> 이 지표는 기업이 최적의 투자처를 찾는 데 유용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표를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규제 환경을 평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하나인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규제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적 자유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과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기업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자유지수와 기업규제지수의 특성을 소득수준별·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간단히 분석한다. 둘째로 기업환경 개선, 특히 경제규제의 확대 및 경제자유 확대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 및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가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셋째로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경제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 차문중(2005), 김종호 외(2007)는 기업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최근 연구이다.

3) 세계은행의 2008년 기업환경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78개국 중 기업환경이 3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II. 경제자유와 규제

### 1. 경제자유와 규제

경제자유와 경제규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최근에 이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기초로 한 다양한 지수의 개발을 통해 이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대안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경제자유(economic freedom)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 있다. 해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자유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sup>4)</sup> 최고의 경제자유는 절대적인 재산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완전

4) 세계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와 그 성격상 매우 유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와 프레이저연구소의 세계경제자유지수가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몇 가지 특징을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첫째로 해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가 있다. 이것은 10개 분야의 지수를 수량화하여 측정하여 총량 경제자유지수를 산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자유지수이다. 미국의 해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동으로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의 내용은 162개국(2008년 보고서의 경우 이 중 4개국은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다)을 대상으로 50개 변수를 10개의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기업자유, 무역자유, 재정자유, 정부규모, 통화자유, 투자자유, 금융자유, 재산권, 부패로부터의 자유, 노동자유 등이다. 경제자유지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는 같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0~100점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고 100점은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프레이저연구소의 세계경제자유지수(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EFW)이다. 이 지표는 실측치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되어 오고 있는 경제자유지수이다. 세계경제자유지수는 5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의 항목은 10점 만점으로 수치화하여 가중치 없이 계산하여 구한다. 첫째, 정부규모 분야는 총소비 중 일반정부의 소비지출 비중, GDP 대비 정부의 이전·보조금 비중, 공기업과 공공투자, 최고 한계세율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둘째, 법적 구조와 재산권 보호 분야는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한 재판, 재산권 보호, 법의 지배에 대한 군의 개입 및 정치과정, 법적 시스템의 완비, 계약의 법적 집행, 실물자산 판매에 대한 제한 등 7개 항목이다. 셋째, 통화건전성 분야는 통화증가율,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외환계좌 보유의 자유 등 4개 항목이다. 넷째, 국제무역 자유 분야는 수출입 대비 관세수입 비중, 평균관세율, 관세율의 변동성, 규제적인 무역장벽, 무역부문의 크기, 암시장 환율, 국제자본시장 통제 등 5개 항목이다. 다섯째, 시장규제 분야는 금융시장 규제, 노동시장 규제, 기업규제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보고서는 기업활동의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히 실현된 노동, 자본 및 재화 이동의 자유, 자유 그 자체를 보호·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뛰어넘는 경제자유도의 제약 또는 탄압의 절대적인 부재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자유는 개인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생산하고 투자하는 것에서 자유롭고 그러한 자유가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국가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sup>5)</sup>

반면에 경제규제는 바람직한 경제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생산·유통·가격 등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규제는 그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규제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생산량·공급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는 정부규제와 그것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수는 창업, 허가취득, 인력고용, 재산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납세, 국제무역, 계약이행, 폐업 등 10개 부문의 기업규제를 측정하고 있다. 이 지수의 특징은 등록하는 절차 수, 고용경직성지수와 같은 실질적인 규제를 측정하고 있으며, 기업등록 및 계약집행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 등과 같은 규제의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6)</sup>

경제자유와 경제규제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자유를 정의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며, 경제자유지수 측정을 통해서 경제자유에 대한 더 폭넓은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어느

---

활동의 제약요인들을 절차, 시간, 비용 등과 같은 항목들을 각국의 구체적인 법적·제도적인 근거하에 일관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환경을 추정하고 있고 또 각국이 기업관련 제도들을 변경하였을 경우의 기업환경 개선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제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당해 국가의 기업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는 창업, 허가취득, 인력고용, 재산등록, 자금조달, 투자자 보호, 납세, 국제무역, 계약이행, 폐업 등 10개 부문에 대한 기업관련 규제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의 특징은 다른 보고서들에 비해 기업활동의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이나 규제수준이 비교 가능한 지수나 변수들로 측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예로 2007년 178개국을 대상으로 10개 평가부문과 39개 세부평가항목에 걸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부문의 수는 2003년에는 5개 부문(사업시작, 인력의 고용과 해고, 계약이행, 자금조달, 사업종료), 2004년에는 7개 부문(자산등록, 투자자 보호)에서 2005년과 2006년에는 10개 부문(허가취득, 납세, 국제무역)으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5)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에 대해서는 Beach and Kane(2008) 참조.

6) The World Bank(2004, 2005, 2006, 2007, 2008).

국가의 경제자유가 어떤 수준이냐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또 변영하는 국가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자유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국의 경제자유지수의 수준 및 원천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자유가 주요한 구성분야 별로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가를 점수로 계측하여 평가한 지표이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와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며 또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의 증진이 경제적인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함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sup>7)</sup>

7) 경제적 자유는 법원천(legal origin)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산물이기는 하지만, 불변·고정의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논평가 한 분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다. 필자는 논평가의 귀중한 논평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논의의 지평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논평가의 논평의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이 연구의 전제는 경제적 자유와 규제가 경제성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규제가 약한 사회일수록 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실증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결론의 더욱 근본적인 전제는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을 어떤 사회가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채택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자유 속에서의 질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제적인 자유가 성장의 열쇠일 수 있는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는 역사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면 중요한 것을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그런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도 인용하고 있는 North나 Hayek, Grief, Weingast 등의 경제사에 관한 연구들을 읽어 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독립변수성이 매우 약한 역사적인 결과물이고 이것은 그 기원이 다시 각 사회의 경제적, 종교적, 상업적 전통 등에 기원하고 있다. Weber, Tocqueville, Toynbee 등 모두 마찬가지로의 입장이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자유와 규제, 그리고 경제의 성장까지 모두가 동일한 역사의 결과물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 경제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이 변수들 간의 횡적인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만드는 종적이고 역사적인 변수들의 복잡계적인 결과가 경제의 발전이다. 복잡계 연구자들의 입장 역시 유사하다. 이런 변수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공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복잡계 연구자들의 핵심주장이다. North의 주장처럼 사회변화의 경로가 고착되는 것도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기회가 애당초 사장될 수밖에 없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회가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고 정부의 규제는 완화될 수 있는 사회로 갈 가능성은 Hayek, North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가능하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자유는 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절대 충분조건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가 얼마든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규제의 자유화가 카드사의 부실을 부른 바 있고 미국에서도 그린스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감독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자유가 질서와 성장을 의미할 것인지 아니면 혼란과 기회주의를 가져올 것인지는 역사, 문화, 비공식 제도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 경제적 자유만으로는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 사하라 이

경제규제도 경제자유와 마찬가지로 이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규제지수는 경제적인 규제를 정의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며 이 같은 지수를 통하여 경제규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는 규제의 원천과 규제 개선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 2. 경제자유지수와 기업규제지수

### (1) 경제자유와 기업규제지수의 관계

세계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와 그 성격상 매우 유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다. 해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는 10개 분야의 지수를 수량화하여 측정하여 총량 경제자유지수를 산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자유지수이다.<sup>8)</sup> 미국의 해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동으로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표 1>은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와 해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와 상관을 보여준다. 상관계수가 곧바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두 변수 간에 존재하는 선형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인 것만은 분명하다.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수치가 클수록 경제자유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규제가 작은 것을 나타내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수 모두의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2007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1인당 GDP와 부문별 기업규제지수 간에 존재하는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sup>9)</sup>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와 경제자유지수 간에는 1% 유의

남의 아프리카국가나 동남아 또는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자유는 결코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와 협력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단지 자유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줄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란 저런 상황이란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North나 Hayek 그리고 복잡계나 경제사 연구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8) 해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Beach and Kane(2008)을 참조. 경제자유지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는 같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0~100점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고 100점은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9)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157개 국가,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는 178개 국가의 자료가 이용되었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0.8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경제자유와 경제규제 간에 음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와 경제자유지수 간의 상관관계(2007년)

| 구 분           |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 |
|---------------|---------------|-------------|
|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 1.0           |             |
|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   | -0.8***       | 1.0         |

주: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2) 지역별 · 소득수준별 경제자유지수와 기업규제지수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규제지수와 함께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를 소득수준과 세계 지역별로 구분하여 2003~2007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이 <표 2>와 <표 3>이다.<sup>10)</sup>

기업규제지수와 함께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를 5개의 세분화된 지역그룹별로 나누어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미·유럽지역의 경제자유가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Sub-Saharan African region)의 경제규제는 높고 경제자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가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미·유럽지역은 5개 지역 중 가장 높은 경제자유지수를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기업규제지수를 보여주었다. 아태지역의 경제규제는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자유지수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며, 동시에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0) 세계 각국을 몇 개의 지역(Geographic region)으로 구분하고 소득수준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World Bank의 WDI 홈페이지에서 구하였다. Geographic region은 7개의 구분법에 따라 구분하였으나 실증분석에서 다시 5개의 큰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득그룹(classification by income)은 2007년도 GNI per capita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World Bank의 Atlas방법으로 구한 것이다. 저소득국가는 1인당 GNI가 935달러 또는 그 이하인 나라, 중하위소득국가는 936~3,705달러인 국가, 중상위소득국가는 3,706~11,455달러인 국가, 고소득국가는 11,456달러 또는 그 이상인 국가를 의미한다.

〈표 2〉 세계의 지역별 경제자유 및 기업규제 지수 변화 추이

| 구 분              | 지역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세계은행<br>기업규제지수   | 아태지역         | 0.519  | 0.457  | 0.443  | 0.447  | 0.440  |
|                  | 유럽·북미지역      | 0.418  | 0.396  | 0.406  | 0.396  | 0.384  |
|                  | 라틴아메리카       | 0.534  | 0.544  | 0.556  | 0.493  | 0.497  |
|                  | 중동·북아프리카지역   | 0.537  | 0.544  | 0.514  | 0.520  | 0.516  |
|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 0.639  | 0.634  | 0.634  | 0.626  | 0.628  |
| 헤리티지재단<br>경제자유지수 | 아태지역         | 60.654 | 60.957 | 61.881 | 61.924 | 61.809 |
|                  | 유럽·북미지역      | 63.388 | 63.667 | 65.247 | 65.511 | 65.939 |
|                  | 라틴아메리카       | 60.599 | 60.607 | 60.725 | 60.574 | 60.145 |
|                  | 중동·북아프리카지역   | 57.739 | 58.100 | 57.683 | 58.408 | 58.775 |
|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 55.422 | 55.245 | 54.468 | 54.903 | 54.701 |

주: 1) 지역구분은 주10) 참조

2)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는 0~1범위의 지수,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0~100범위의 지수

〈표 3〉 세계의 소득수준별 경제자유 및 기업규제 지수 변화 추이

| 구 분              | 소득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세계은행<br>기업규제지수   | 고소득국가   | 0.350  | 0.346  | 0.332  | 0.320  | 0.308  |
|                  | 중상위소득국가 | 0.526  | 0.505  | 0.513  | 0.459  | 0.462  |
|                  | 중하위소득국가 | 0.570  | 0.538  | 0.541  | 0.537  | 0.531  |
|                  | 하위소득국가  | 0.642  | 0.631  | 0.633  | 0.635  | 0.637  |
| 헤리티지재단<br>경제자유지수 | 고소득국가   | 70.199 | 70.283 | 70.963 | 71.063 | 71.506 |
|                  | 중상위소득국가 | 57.965 | 58.383 | 59.207 | 59.454 | 59.561 |
|                  | 중하위소득국가 | 56.562 | 56.689 | 56.825 | 57.064 | 56.988 |
|                  | 하위소득국가  | 52.567 | 52.539 | 52.601 | 53.082 | 52.692 |

주: 1) 소득구분은 주10) 참조

2) <표 2>의 주 참조

이 같은 경제자유지수와 기업규제지수의 변화를 소득수준별로 보여주는 것이 <표 3>이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이미 고소득국가에서 경제규제가 낮고 경제자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국가의 경우에 경제규제는 높고 경제자유는 낮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상위 소득국가와 중하위 소득국가의 경우 기업규제 지수 순위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III. 경제자유, 규제와 경제성장: 실증분석

#### 1. 선행연구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은 경제학의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비율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세 가지의 접근법이 존재하고 있다.<sup>11)</sup>

첫 번째는 Solow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함수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에서 산출은 자본(K), 노동(L)의 함수로 간주하고 산출은 투입량의 증가 및 기술진보를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 이 접근법은 인간자본 및 물적자본의 증가 및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진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설명에서 높은 산출 성장은 생산함수에 투입량을 증대시키거나 그 투입물을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다.

두 번째로 제도적인 접근법은 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생산성은 제도적인 환경이나 정책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성장이나 번영에 가장 적당한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권 보호가 중요하고 교환에 대한 장애가 최소화되어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산권 및 교환의 자유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정책이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credible commitment)이 충족되어야 한

11) Gwartney, Holcombe, and Lawson(2005) 참조.

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번영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역적인 요인을 꼽는다. Sachs(2003)는 지역요인이 성장과 소득수준의 국가 간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양성 환경, 항구에 대한 접근성, 뉴욕, 로테르담, 도쿄와 같은 세계 주요무역 중심지와 떨어져 있는 거리 등이 중요한 요인이다. 해양성 환경은 질병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켜 성장을 저해하며 뜨겁고 습한 환경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항구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높은 수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큰 규모의 무역을 어렵게 하며 무역량이 줄어들면 노동분업, 특화, 규모의 경제효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감소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언급한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 즉 기업활동을 지배하는 경제규제와 경제자유를 분석함으로써 경제성장 요인분석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한다.

Hall and Jones(1990), North(1990), Acemoglu et al.(2001)은 제도가 부의 축적과 장기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과거에 좋은 정치·경제 제도를 갖고 있던 국가는 오늘날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의 새로운 척도를 사용해서 제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도의 질을 나타내는 변수로 기업규제와 경제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기업규제의 부담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 위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 보고서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Djankov et al.(2006)은 기업규제 완화가 1인당 GDP로 측정된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킨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Dawson(2006)은 대규모 국별 자료를 이용하여 규제와 투자와 장기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광의의 규제는 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는 또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비율을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규제는 민간투자와 음의 관계에 있었지만 공공투자와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경제성장 회귀식의 결과와 연결하여 분석해 볼 때 규제 감축은 투자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규제와 대칭을 이루는 개념은 경제자유이다.

Gwartney, Holcombe and Lawson(2004, 2006)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자유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양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Loayza et al.(2005), Dawson(2006) 등은 경제자유 확대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Gwartney, Holcombe, and Lawson(2004, 2006)은 제도의 질 변수로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사용하여 이 변수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경제자유에 좀 더 일치하는 제도와 정책을 갖는 나라는 더욱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더 높은 소득수준에 도달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제도의 질이 투자뿐만 아니라 자원 사용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이 같은 제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Haan and Sturm(1999)도 경제자유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Cole(2003)은 프레이저연구소의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추가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일정시점에서 측정된 경제자유지수의 수준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경제자유지수의 변화도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2. 분석모형과 자료

우선 기업규제 또는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하기로 한다. Barro(1991, 1996)형 성장모델로 Dawson(2006), Djankov et al.(2006)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추정한 바 있다. 즉

$$Per\ GDP\ growth_i = \alpha + \beta_1 Busreg_i + \beta_2 \ln(PerGDP_{95})_i + \beta_3 X_i + \epsilon \quad (1)$$

또 한편으로 경제자유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Gwartney, Holcombe and Lawson(2004, 2006) 이외에도 Loayza et al.(2005), Dawson(2006)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정모형을 정식화할 수 있다. 즉

$$Per\ GDP\ growth_i = \delta + \gamma_1 Econfree_i + \gamma_2 \ln(PerGDP_{95})_i + \gamma_3 X_i + \epsilon \quad (2)$$

여기서 *Per GDP growth*는 1995~2006년간의 1인당 GDP성장률의 평균이고, *Per GDP<sub>95</sub>*는 1995년의 1인당 GDP의 로그값이다. 1995~2006년 기간 중의 1인당 GDP의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의 WDI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하였다. *Busreg*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가 2003년 이후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는 기업규제지수의 2003~2006년 기간의 평균값을 의미하고,<sup>12)</sup> 마찬가지로 *Econfree*는 같은 기간 중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의 평균값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규제를 나타내는 변수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가 매년 생산하고 있는 부문별 기업규제지수를 이용하였다. 총량기업규제지수는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10개 분야의 개별 국가순위의 단순평균을 구한 다음 이 지수를 0~1에서 변동하도록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각 분야의 순위는 각 구성요인지수의 각각에 대한 단순평균이다. 예컨대, 창업의 순위는 절차, 시간, 비용, 최소자본비용의 각국의 순위를 단순히 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구한 기업환경 부문별 지수가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은 기업친화적이지 않은 규제, 즉 규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이 지수값이 클수록 경제자유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헤리티지재단이 구해 놓은 연도별 경제자유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X<sub>i</sub>*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이다. 이에선 초등학교 등록률, 중등학교 등록률, 정부소비지출 비중, 투자비중, 세계지역별 더미변수, 법질서지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999년도 초등학교 진학률 및 1999년도의 중등학교 진학률,<sup>13)</sup>

12) Djankov et al.(2006)은 1993~2003년 기간 중에 각 국가별로 규제수준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2003년 1월 기준의 규제수준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1993~2003년의 1인당 GDP 평균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법론을 따랐다. 통합지표를 만들기 전에 관련 변수들을 표준화 또는 정규화(standardising variables)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변수들의 통계단위가 서로 다르고 또 변수들마다 상이한 스케일과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변수들은 측정단위를 단일화하여 통일된 측정단위를 갖도록 변수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한 후에야 여러 변수들을 합산(additive)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이질적인 지표로 측정된 각종 데이터들을 하나의 지표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Percentrank를 이용하여 각 부문별 변수의 순위를 매긴 다음 이것을 단순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3) 세계은행의 WDI의 세계 각국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등록률 자료는 WDI 온라인 자료에 따르면 1999

1995~2006년까지의 GDP 대비 정부소비의 평균비율, 1995~2006년 기간 중의 GDP 대비 총투자비중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세계은행의 WDI에서 구하였다. 또한 제도변수로는 법질서(law and order)지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들 법질서 자료는 PRS Group에서 구한 것이며 이 변수 또한 1995~2006년 기간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계 지역더미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역더미, 라틴아메리카 지역더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더미 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 3. 실증분석 결과

#### (1) 기업규제와 1인당 GDP성장률

기업규제가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분석은 Barro(1996) 및 Djankov et al.(2006)이 사용한 방법론을 따라 이루어졌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표 4>이다. 기업규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성 있는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제가 커지면 일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인 1인당 GDP성장률과 기업규제지수 간의 내생성(endogeneity)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Djankov et al.(2006)은 지적하였다. 첫째는 어떤 국가는 양질의 기업규제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높을 수 있다. 둘째, 더욱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는 기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셋째 기업규제와 성장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관계는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1인당 GDP와 기업규제 간에 내생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sup>14)</sup>

따라서 기업규제지수와 경제성장 간의 내생성 존재 여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우리는

---

년부터 비교적 많은 국가자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 등록률 자료는 1999년도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등록률이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기간 불일치가 추정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14) 도구변수는 독립변수와 상관관계를 갖지만, 오차항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외생변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찾는 일은 매우 힘들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 도구변수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외생변수이지만 내생 회귀변수와 약한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료가 오히려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Baum(2007)을 참조.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사용하는 2단계최소자승법(TSLS)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는 내생성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의 경우 규제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명변수가 내생변수면 그 내생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종속변수와 관련 있는 외생변수, 즉 도구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또 다른 추정식을 고려할 수 있다. 두 추정식의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하나의 추정식만으로 추정하여도 일치 추정치를 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치가 불일치한 추정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u-Hausman검정을 실시하였다. 내생성이 존재하는 경우 내생성을 교정하기 위한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의 하나로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TSLS회귀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La Porta et al.(1999)이 사용한 바 있는 국가의 법적원천(legal origin), 절대위도(latitude), 초기 1인당 GDP 변수를 기업규제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예컨대, 법적원천은 기업규제의 좋은 도구변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변수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법적인 측면을 정의하고 있고, 기업규제의 복잡성과 관련이 되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법적원천이 분석기간 중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논리가 지정학적인 변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OLS)와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추정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도구변수들을 이용하였을 때 기업규제지수가 실제로 내생변수인지 여부를 Durbin-Wu-Hausman검정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기업규제지수는 내생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지수는 1인당 GDP성장률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OLS 분석결과이든 TSLS 분석결과이든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추정계수도 역시 음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규제가 강화될수록 1인당 GDP로 측정된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1인당 GDP 수준은 경제성장 식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0.01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설명변수가 일정하다면, 계수의 크기가 나타내는 율로 장기 포지션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sup>15)</sup> 중등학교 등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

〈표 4〉 1인당 GDP 성장률의 결정요인: 세계은행 기업규제지수

| 구 분                   | OLS 추정결과              |                       |                       |                       | TOLS 추정결과             |                       |                       |                       |
|-----------------------|-----------------------|-----------------------|-----------------------|-----------------------|-----------------------|-----------------------|-----------------------|-----------------------|
|                       | 식(1)                  | 식(2)                  | 식(3)                  | 식(4)                  | 식(1)                  | 식(2)                  | 식(3)                  | 식(4)                  |
| 상수항                   | 0.1415***<br>(6.40)   | 0.0860***<br>(3.78)   | 0.1326***<br>(5.45)   | 0.0818***<br>(-3.38)  | 0.1887***<br>(6.09)   | 0.1305***<br>(4.14)   | 0.2019***<br>(5.59)   | 0.1393***<br>(3.95)   |
| 기업규제지수                | -0.0559**<br>(-3.20)  | -0.0449**<br>(-2.84)  | -0.0499**<br>(-2.66)  | -0.0418**<br>(-2.47)  | -0.0984***<br>(-3.41) | -0.0783**<br>(-2.96)  | -0.1078***<br>(-3.38) | -0.0842**<br>(-2.92)  |
| 1인당 GDP로그값            | -0.0097***<br>(-5.06) | -0.0087***<br>(-5.04) | -0.0101***<br>(-5.13) | -0.0089***<br>(-5.00) | -0.0121***<br>(-5.84) | -0.0107***<br>(-5.61) | -0.0118***<br>(-5.84) | -0.0103***<br>(-5.62) |
| 초등학교 등록률              | -0.0110<br>(-1.06)    | -0.0167*<br>(-1.77)   | -0.0104<br>(-1.00)    | -0.0163*<br>(-1.72)   | -0.0152<br>(-1.53)    | -0.0180**<br>(-2.02)  | -0.0163<br>(-1.61)    | -0.0189**<br>(-2.10)  |
| 중등학교 등록률              | 0.0182<br>(1.62)      | 0.0263**<br>(2.58)    | 0.0192*<br>(1.70)     | 0.268**<br>(2.60)     | 0.0191*<br>(1.77)     | 0.0252**<br>(2.58)    | 0.0180<br>(1.64)      | 0.0246**<br>(2.47)    |
| GDP 대비<br>정부소비비중      | -0.0377<br>(-0.90)    | -0.0528<br>(-1.40)    | -0.0459<br>(-1.06)    | -0.0570<br>(-1.47)    | -0.0656<br>(-1.60)    | -0.0686*<br>(-1.87)   | -0.0581<br>(-1.41)    | -0.0614*<br>(-1.67)   |
| GDP 대비<br>투자비중        |                       | 0.1963***<br>(4.95)   |                       | 0.1944***<br>(4.86)   |                       | 0.1587***<br>(4.11)   |                       | 0.1604***<br>(4.15)   |
| 법질서지수                 |                       |                       | 0.0019<br>(0.88)      | 0.0010<br>(0.52)      |                       |                       | -0.0023<br>(-0.94)    | -0.0019<br>(-0.90)    |
| 사하라사막 이남의<br>아프리카지역더미 | -0.0233***<br>(-3.80) | -0.0122**<br>(-2.07)  | -0.0220***<br>(-3.50) | -0.0117*<br>(-1.94)   | -0.0185***<br>(-3.19) | -0.0104*<br>(-1.89)   | -0.0197***<br>(-3.30) | -0.0114**<br>(-2.02)  |
| 라틴아메리카<br>지역더미        | -0.0127**<br>(-2.54)  | -0.0074<br>(-1.61)    | -0.0102*<br>(-1.76)   | -0.0061<br>(-1.17)    | -0.0122**<br>(-2.61)  | -0.0080*<br>(-1.87)   | -0.0151**<br>(-2.67)  | -0.0104***<br>(-2.04) |
| 아태지역더미                | -0.0108<br>(-1.64)    | -0.0188**<br>(-3.06)  | -0.0105<br>(-1.59)    | -0.0185**<br>(-3.00)  | -0.0168**<br>(-2.44)  | -0.0216***<br>(-3.45) | -0.0176**<br>(-2.50)  | -0.0220***<br>(3.95)  |
| $R^2$                 | 0.3662                | 0.4974                | 0.3714                | 0.4989                | 0.3155                | 0.4508                | 0.2987                | 0.4453                |
| Durbin_Wu_Hausman     | -                     | -                     | -                     | -                     | 0.02991**             | 0.07846*              | 0.01749**             | 0.06451*              |
| 분석국가 수                | 104                   | 104                   | 104                   | 104                   | 102                   | 102                   | 102                   | 102                   |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의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관성 있는 음으로 나타났고, 이 추정계수는 -0.06 내외로 나

15) Barro(1996) 참조.

타났다.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비생산적인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큰 정부는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GDP 대비 투자비중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계수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투자비중은 경제성장에 양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법질서 지수를 설명변수의 하나로 고려하여 추정하여 보았으나, 추정식에 따라 부호가 비일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지역별 더미변수로 사용된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더미 변수, 라틴 아메리카 지역더미, 아시아-태평양 지역더미 등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음으로 나타났다.

## (2) 경제자유와 1인당 GDP성장률

한편으로 경제자유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식(2)를 추정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변수들은 기업규제지수를 사용한 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변수이다. 단지 기업규제지수를 경제자유지수로 대체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지수의 내생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u-Hausm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생성이 존재하는 경우 내생성을 교정하기 위한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의 하나로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TSLS 회귀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OLS 추정결과와 TSLS 추정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표 5>이다. 이때 사용한 도구변수들도 이전의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경제자유지수를 나타내는 변수가 실제로 내생변수인지 여부를 Durbin-Wu-Hausman 검정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경제자유지수 변수는 내생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자유가 커지면 1인당 GDP로 측정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GDP 대비 총투자는 경제성장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은 이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법질서 변수는 회귀식에 넣어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호도 추정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지역별 더미변수로 사용된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더미 변수, 라틴 아메리카 지역더미, 아시아-태평양 지역더미 등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음으로 나타났다.

〈표 5〉 1인당 GDP 성장률의 결정요인: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 구 분                   | OLS추정결과               |                       |                       |                       | TSLS 추정결과             |                       |                       |                       |
|-----------------------|-----------------------|-----------------------|-----------------------|-----------------------|-----------------------|-----------------------|-----------------------|-----------------------|
|                       | 식(1)                  | 식(2)                  | 식(3)                  | 식(4)                  | 식(1)                  | 식(2)                  | 식(3)                  | 식(4)                  |
| 상수항                   | 0.0614***<br>(3.86)   | 0.0117<br>(0.69)      | 0.0601***<br>(3.74)   | 0.0112<br>(0.65)      | 0.0225<br>(0.84)      | -0.0178<br>(-0.70)    | 0.017<br>(0.64)       | -0.0210<br>(-0.80)    |
| 경제자유지수                | 0.0932***<br>(3.96)   | 0.0896***<br>(4.29)   | 0.0890***<br>(3.64)   | 0.0870***<br>(4.00)   | 0.2069**<br>(3.00)    | 0.1800**<br>(3.03)    | 0.2311**<br>(2.90)    | 0.1978**<br>(2.92)    |
| 1인당 GDP로그값            | -0.0110***<br>(-5.89) | -0.0102***<br>(-6.15) | -0.0113***<br>(-5.87) | -0.010***<br>(-6.08)4 | -0.0156***<br>(-4.78) | -0.0140***<br>(-4.93) | -0.0160***<br>(-4.80) | -0.0141***<br>(-4.96) |
| 초등학교 등록률              | -0.0066<br>(-0.63)    | -0.0075<br>(-0.81)    | -0.0060<br>(-0.57)    | -0.0072<br>(-0.77)    | 0.0042<br>(0.34)      | 0.0011<br>(0.11)      | 0.0052<br>(0.41)      | 0.0016<br>(0.15)      |
| 중등학교 등록률              | 0.0196*<br>(1.84)     | 0.0240**<br>(2.52)    | 0.0199*<br>(1.86)     | 0.0242**<br>(2.53)    | 0.0121<br>(0.99)      | 0.0179<br>(1.69)*     | 0.0104<br>(0.81)      | 0.0167<br>(1.50)      |
| GDP 대비<br>정부소비비중      | -0.0252<br>(-0.64)    | -0.0307<br>(-0.88)    | -0.0313<br>(-0.77)    | -0.0345<br>(-0.95)    | -0.0175<br>(-0.41)    | -0.0244<br>(-0.66)    | -0.0092<br>(-0.20)    | -0.0169<br>(-0.43)    |
| GDP 대비<br>투자비중        |                       | 0.1970***<br>(5.12)   |                       | 0.1960***<br>(5.07)   |                       | 0.1918***<br>(4.76)   |                       | 0.1934***<br>(4.64)   |
| 법질서지수                 |                       |                       | 0.0013<br>(0.65)      | 0.0008<br>(0.45)      |                       |                       | -0.0016<br>(-0.62)    | -0.0015<br>(-0.67)    |
| 사하라사막 이남의<br>아프리카지역더미 | -0.0278***<br>(-4.69) | -0.0181**<br>(-3.24)  | -0.0268***<br>(-4.37) | -0.0175**<br>(-3.05)  | -0.0336***<br>(-4.40) | -0.0230***<br>(-3.33) | -0.0360***<br>(-4.07) | -0.0248***<br>(-3.20) |
| 라틴아메리카<br>지역더미        | -0.0157***<br>(-3.33) | -0.0106**<br>(-2.46)  | -0.0138**<br>(-2.52)  | -0.0094*<br>(-1.91)   | -0.0191***<br>(-3.53) | -0.0134**<br>(-2.79)  | -0.0220**<br>(-2.99)  | -0.0158**<br>(-2.51)  |
| 아태지역더미                | -0.0087<br>(-1.50)    | -0.0173**<br>(-3.18)  | -0.0088<br>(-1.50)    | -0.0173**<br>(-3.16)  | -0.0138**<br>(-1.99)  | -0.0212***<br>(-3.38) | -0.0147**<br>(-2.01)  | -0.0218***<br>(-3.34) |
| R <sup>2</sup>        | 0.4146                | 0.5445                | 0.4173                | 0.5455                | 0.1935                | 0.3960                | 0.1246                | 0.3570                |
| Durbin_Wu_Hausman     | -                     | -                     | -                     | -                     | 0.02030**             | 0.03517**             | 0.01194**             | 0.02424**             |
| 분석국가수                 | 102                   | 102                   | 102                   | 102                   | 101                   | 101                   | 101                   | 101                   |

주: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개선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해 본 것이다. 기업규제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며, 경제규제와 대칭되는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규제의 강화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성장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고, 기업에 가해지는 경제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기업규제지수와 높은 경제성장률 간의 음의 관계 및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양의 관계는 표준적인 성장모델과 여러 변형된 모델을 추정해 보아도 일관성 있게 유의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경제자유 증진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특히 유의할 만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이 있으며, 경제성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제의 개혁 내지 경제자유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나 해리티지의 경제자유지수를 이용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한 개혁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분석 결과는 문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제도개혁의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 기업규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문은 기업규제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규제 중 창업, 노동규제, 납세관련 행정규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규제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절차수와 최소자본금을 대폭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규제의 경우 고용경직성의 완화와 해고비용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 납세부문의 경우 납세 회수와 소요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기업규제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임을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중호·김원규·조창현, 『정부규제와 경제적 성과』,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 이병기, 「기업환경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이주선·이병기·송원근·정현용 편, 『기업환경개선 종합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8.
- 차문중,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규제가 산업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차문중 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a.
-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이병기 역,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1995.
-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1, No.5, Dec. 2001, pp.1369-1401.
- Barro, Robert J.,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6, No.2, May, 1991, pp.407-443.
- \_\_\_\_\_,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NBER Working Paper 5698, 1996.
- Barro, R. J. and Sala-i-Martin, X., *Economic Growth*, New York: McGraw Hill, 1995.
- Baum, C. F., “Instrumental Variables: Over View and Advances,” Boston College,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October 2007.
- Beach, W. W., and T. Kane, “Methodology: Measuring the 10 Economic Freedom,” Chapter 4 in Kane et al., 2008 *Index of Economic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2008.
- Cole, J. H.,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Freedom to World Economic Growth, 1980-99,” *Cato Journal*, Vol.23, No.2, Fall 2003, pp.189-198.
- Dawson, J. W., “Institution, Investment, and Growth: New Cross-Country and Panel Data

- Analysis,” *Economic Inquiry*, Vol.XXXVI, October1998, pp.603-619.
- \_\_\_\_\_, “Regulation, Investment, and Growth,” *Cato Journal*, Vol.26, No.3, Fall 2006, pp.489-509.
- Djankov, S., C. McLiesh and R. Ramalho, “Regulation and Growth,” *Economic Letters* 92, 2006, pp.395-401.
- Djankov, S., R. La Porta, F. Lopez-de-Silance, and A. Shleifer, “The Regulation of En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1), Feb. 2002, pp.1-37.
- Eifert, B.P, “The Economic Response to Regulatory Reform, 2003-06,” December 2007.
- Gwartney, James D., Holcombe, Randall G. and Lawson, Robert A., “Institutions and the Impact of Investment on Growth,” *Kyklos*, Vol.59, No.2, May 2006, pp.255-273.
- \_\_\_\_\_, “Economic Freedom, Institutional Quality, and Cross\_country Differences in Income and Growth,” *Cato Journal*, Vol.24 No.3, Fall 2004, pp.205-233.
- Hall, R. E., and C. I. Jones, “Why Do Some Countries Produce So Much More Output Per Worker Than Oth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4, No.1, 1999, pp.83-116.
- Loayza, N. V., A. M. Oviedo, L. Servén, *The Impact of Regulation on Growth and Informality: Cross-Country Evidence*, Mimeo, May 2005.
- Sachs, J. D., “Institutions Don’t Rule: Direct Effects of Geography on Growth,” NBER Working Paper No.9490, 2003.
- Sala-i-Martin, Xavier, Gernot Doppelhofer and Ronald I. Miller, “Determinants of Long-Term Growth: A Bayesian Averaging of Classical Estimates(BACE) Approac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4, No.4, Sep., 2004, pp.813-835.
- Sturm, Jan-Egbert and Jakob de Ha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Economic Growth,”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6, 2000, pp.215-241.
- The Fraser Institute, “Chapter 1: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5,” in The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7 Annual Report*, 2007.
- The World Bank, “Building New Indicators of Business Regulation,” in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4, pp.1-15.

\_\_\_\_\_, *Doing Business*, 2004, 2005, 2006, 2007, 2008.

## The Impact of Business Regulation and Economic Freedom on Economic Growth

Byoungki Lee

This paper studies questions regarding the effect of economic freedom and business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A model is constructed with business regulations or economic freedom as a critical factor for economic growth, to estimate their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results indicate that economic freedom and government regulation of busines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economic growth. Estimated coefficients of business regulation are negative with the growth rate of per capita GDP,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significance level. Greater economic freedom means higher growth rate of the economy measured by per capita GDP. The results are obtained by controlling initial per capita GDP, enrollment rate of secondary and primary schools, investment ratio, governmental consumption rate, law & order index, dummy variables across regions of the world. Tightened business regulations constrain economic growth while economic freedom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is implies that increasing economic freedom or more active measure of eliminating economic regulations affecting companies makes it possible to promote economic growth. In terms of business regulations, the World Bank reports indicate that Korea should place emphasis on starting a business, labor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ax payments. By improving these conditions for doing business,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accelerate.

Key words: Business Regulation, Economic Freedom, Economic Growth